

## 『明心寶鑑』과 佛敎와의 關係

성 해 준\*

###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명심보감』 서문의 불교적 내용
- III. 『명심보감』 본문의 불교적 내용
- IV. 『명심보감』의 불교적 내용 경시이유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명심보감』의 편저자인 중국인 范立本이 1393년에 간행한 서문의 일부에서 “是故集其先輩，已知通俗諸書之要語。慈尊訓誨之善言，以爲一譜，謂之明心寶鑑”라고 한 것처럼 원본 『명심보감』에는 서문을 비롯하여 본문의 「繼善篇」·「天命篇」·「順命篇」·「安分篇」·「存心篇」·「戒性篇」·「省心篇」·「言語篇」 등에서 불교사상과 관련된 仏心, 煩惱, 參禪 등과 같은 용어가 포함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이러한 불교사상이 포함된 내용은 1454년 조선의 「청주본」을 시작으로 그 후에 간행된 중국의 「명간본」·「청간본」, 일본의 「화각본」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데 반해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초락본 『명심보감』 판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청주본 『명심보감』의 序文과 跋文·本文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명심보감』이 유교 사상에 중점을 둔 서적이라는 설과는 달리 특정 사상에 일관된 것이 아니라 유교·불교·도교의 인간행위의 선악결과에 따른 인과사상의 중요한 요소를 발췌하면서도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불교의 핵심사상을 강조하며 세상에 널리 전파시켜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한 출판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

---

\* 동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행연구에서는 권선서가 유불도의 3교합일 사상이 혼재된 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명심보감』의 불교 사상관련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원본이 자취를 감추고 난 후 간행된 초락본 『명심보감』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명심보감』의 유교화를 시도한 탓이라 생각된다. 그 때문에 현 학계에서는 『명심보감』의 불교사상 관련 언급은 있으나 『명심보감』의 불교사상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명심보감』의 불교사상 관련연구가 경시되어 온 이유에 대해 고찰하면서 1454년에 간행된 원본 『명심보감』 “서문”과 “본문”에 보이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명심보감』과 불교사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명심보감, 유교 · 불교 · 도교, 서문, 본문, 청주본

## I. 머리말

『명심보감』의 편저자인 중국의 范立本이 1393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주본」 서문의 일부에서 “是故集其先輩，已知通俗諸書之要語，慈尊訓誨之善言，以爲一譜，謂之明心寶鑑”(이런 까닭으로 선배들이 이미 알고 있던 민간의 여러 책 중에 요긴한 말과 석가의 가르침 중에 좋은 말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 ‘명심보감’이라고 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원본 『명심보감』에는 서문을 비롯하여 본문의 「繼善篇」·「天命篇」·「順命篇」·「安分篇」·「存心篇」·「戒性篇」·「省心篇」·「言語篇」에서 “方便과 善行，因果應報，知足安分” 등 불교 사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慈悲와 功德을 찬양하는 원색적인 불교 색을 풍기는 “佛心，作佛，念佛，禮佛，佛度，佛經，成佛，看經，經典，無常，因緣，三惡，浮生，參禪，煩惱，輪廻，布施，戒律，藏經，濟顛

和尚, 道淸和尚, 衆生濟度”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불교사상이 포함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이러한 불교사상이 포함된 내용은 1454년 조선의 『청주본』을 시작으로 그 후에 간행된 중국의 『명간본』·『청간본』, 일본의 『화각본』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데 반해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심보감』 판본에는 불교적 용어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원본이 자취를 감추고 난 후 간행된 초략본 『명심보감』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명심보감』의 유교화를 시도한 탓이라 생각된다. 그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도 『명심보감』의 불교사상 관련 언급은 있으나 『명심보감』의 불교사상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454년에 간행된 원본 『명심보감』 “서문”과 “본문”에 보이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명심보감』과 불교사상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Ⅱ. 『명심보감』 서문의 불교적 내용

이 장에서는 『명심보감』의 편찬자 범입본이 1393년에 작성한 글로 판단되는, 현존하는 세계의 『명심보감』 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인 청주본 서문에 보이는 불교관련을 고찰하고자 한다.<sup>2)</sup>

태상감응편에 말하기를, 옛날 어진 사람은 선을 말하고, 선한 것을 보고, 선

- 
- 1) 김윤수, 『『명심보감』에 인용된 景行錄에 대해서』(『道敎思想의 韓國的展開』, 1989년). 송희준, 『『명심보감』의 諸問題』(『啓明漢文學會』 14, 1999년).
  - 2) 서문은 1454년 조선의 “청주본”과 1592년 서양인 선교사 코보의 스페인어 판본 『명심보감』에만 남아있고, 그 후에 간행된 한국의 초략본 『명심보감』 판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명간본”·“청간본”, 일본의 “화각본”의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을 행하여 하루에 세 가지 선을 갖나니, 삼 년을 행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 나쁜 사람은 악을 말하고, 악한 것을 보며, 악을 행해서 하루에 세 가지 악을 갖나니, 삼 년이면 하늘이 반드시 이에 화를 내린다. 절효 선생이 말하기를, 말을 선하게 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며, 생각을 선하게 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고 군자가 되지 않는 자는 없다. 말이 착하지 않고, 행실이 착하지 않으며, 생각이 착하지 않나니, 이와 같이 하고서 소인이 되지 않는 자는 없다. 이른바 말이 선한 사람은 남의 선한 마음을 감발시킬 수 있고, 말이 악한 사람은 남의 높은 뜻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선배들이 이미 알고 있던 민간의 여러 책 중에 요긴한 말과 석가의 가르침 중에 좋은 말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 '명심보감'이라고 하였다. 어진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또 이 책으로 배움에 뜻을 둔 자제들을 가르치며, 풍속의 교화를 돈독히 하는데 보탬이 되어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게 하여,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그 뜻을 마음을 둔다면 정말 다행이겠다.<sup>3)</sup>

먼저 청주본 『명심보감』 서두에서 인용한 『태상감응편』의 “착한 사람은 선을 말하고, 선을 보고, 선을 행해서 하루에 세 가지 선을 갖나니 삼 년이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고, 나쁜 사람은 악을 말하고, 악한 것을 보며, 악한 것을 행하여 하루에 세 가지 악을 갖나니 삼 년이면 하늘이 반드시 이에 화를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선악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응보가 있다는 응보관으로 유가와 도가와 불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상이다. 즉 유가의 천이나 도가의 신은 인간의 선악행위에 대해 정확한 상벌을 내리고 혹시 곧바로 응답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4)</sup>

3) 太上感應篇曰，故吉人語善視善行善，一日有三善，三年天必降之福。凶人語惡視惡行惡，一日有三惡，三年天必降之禍。節孝先生曰，言其所善，行其所善，思其所善，如此而不爲君子未之有也。言其所不善，行其所不善，思其所不善，如此而不爲小人未之有也。所謂言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言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是故集其先輩已知，通俗諸書之要語，慈尊訓悔之善言，以爲一譜，謂之明心寶鑑。賢者幸甚覽之，亦可以訓其幼學之子弟，有補於風化敦厚。諸惡莫作，衆善奉行，留於其意。

4) 子曰爲善者，天報之以福，爲不善者，天報之以禍(『명심보감』, 『繼善篇』 1조).  
徐神翁曰，積善逢善，積惡逢惡，仔細思量，天地不錯(『명심보감』, 『繼善篇』 3조).

그러나 불가에서의 상벌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유가·도가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불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前生 今生 來生의 三世輪廻가 반드시 있다. 이 三世輪廻는 因緣業果로 구성된 필연적 연기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지은대로 받는 것으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경작하면 좋은 수확을 할 것이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수확을 하는 것이다. 불가의 인과법칙에 의한 善因善果 惡因惡果는 사바세계의 인과로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도 엄격하고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

한번 지은 業因은 곧바로 그 과보를 받지 않더라도 돌고 돌다가 지은 인연이 모여 만날 때 언젠가는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5)</sup> 과보를 받는 시기도 업보에 따라서 빨리 받는 것도 있고 늦게 받는 것이 있는데 현세에 받는 것을 順現報라 하고 내세에 받는 것을 順生報라하고 그 보다 더 나중에 받는 것을 順後報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채소도 심은 후 한 두 달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몇 달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과일도 몇 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식물도 그 종류에 따라서 종자(因)와 발(緣)이 어떻게 결합하고 작용하느냐에 따라 거두는 시기가 각각 다르듯이 사람이 지은 업보도 종류와 인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악행의 죄는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되는 점은 같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인과의 법칙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더라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르침이다.<sup>6)</sup>

‘서문’의 마지막 대목은 불교 사상의 기미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 특히

善有善報, 惡有惡報, 若還不報, 時晨未到(『명심보감』, 『繼善篇』 4조).

- 5) 가령 백겁 천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만나는 날 과보를 다시 받는다(假使百千劫, 所作業不亡,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
- 6)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192쪽.

“자애 깊은 부처님의 말씀(慈尊訓誨)을 정리하여 계보를 만들어 이것의 이름을『명심보감』”이라고 하였다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뜻에 머물게 하다”에서 ① 慈尊, 즉 “석가의 가르침 중에 좋은 말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 ‘명심보감’이라고 하였다”의 석가모니 가르침의 불교를 명확하게 들어내는 것 외에도 ② “『明心寶鑑』이라 하다”의 ‘明心’은 불교에서 즐겨 쓰는 용어인 마음을 밝힌다는 의미이고, 마음이 곧 부처(心卽仏)로 마음을 밝히면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明心寶鑑』의 “寶鑑”은 불교적 성향을 내포하는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의미로 불교에서 자기 성찰을 생각한다는 것이다.<sup>7)</sup> 특히 불교의 禪師들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이유는 거울은 사물이 다가 오면 비추고 떨어져 가면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도 붙들어두지 않고 또 아무리 추하고 악한 것이라도 밀어내지 않는다. 즉 거울과 같이 마음을 밝고 올바르게 비추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③ 말미의 “諸惡莫作, 衆善奉行”(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은 “감응편”과 “음즐문”<sup>9)</sup>에 인용되고, 七仏通戒에도 있는 내용으로 악을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불교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七仏通戒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七仏通戒偈는 과거 일곱 부처님이 모두 경계한 계송이란 의미이다. 과거칠불은 ① 비바시불, ② 시기불, ③ 비사부불, ④ 구류손불, ⑤ 구나함모니불, ⑥ 가섭불, ⑦ 석가모니불

7) 참고로 일본 江戸시대 초기의 유학자 小瀬甫庵(1564~1640)은 『明心寶鑑』의 내용을 발취하여 만든 서적용 『明意寶鑑』이라 命名하였다.

8)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이유는 거울은 선악미추에 관계없이 그대로 비추어서 어떤 분별이나 집착함이 없기 때문이다.

9) 『明心寶鑑』附 三聖經(中華民國 68年 6月 15日 再版, 臺灣瑞成書局發行) 33면의 “文昌帝君陰騭文”에 의하면 “人心見先哲於羹牆慎獨知於衾影, 諸惡莫作衆善奉行, 永無惡曜加臨, 常有吉神擁護”에도 “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다. 따라서 ‘칠불통계계’란 이러한 과거 일곱 부처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으로 금계(禁戒)한 계송이라는 뜻이다. 칠불통계계는 과거칠불의 공통적인 가르침으로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불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흔히 “모든 악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계송이 통용된다. 이 계송에는 현실적 질서와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생로병사, 즉 죽음의 실존적 한계상황으로부터 우리들 중생을 해탈시켜 구제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표로 삼는 불교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sup>10)</sup>

여기서 “諸惡莫作, 衆善奉行”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 중국 명나라의 도인 원료범(袁了凡)<sup>11)</sup>은 어떠한 악도 짓지 않고 못 선을 받들어 행하여(諸惡莫作, 衆善奉行), 운명은 자아로부터 세우고 복은 자기로부터 구함(命自我立, 福自我求)을 몸소 실천하였다고 한다.<sup>12)</sup> 또 “道林선사”<sup>13)</sup>가 항주 절망산에서

10) 古田紹欽, 『宗教とはなにか—仏敎の立場から』(社會思想史, 1973년), 92쪽.

11) 400전 중국 명나라 사람으로 소년시절 부친을 잃고 편모의 손에 자랐는데, 모친이 과거시험을 보지 말고 의학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다. 후에 자운사(慈雲寺)라는 절에 갔을 때, 운남 사람 공(孔)이라는 노인이 “왜 과거시험을 치르고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였을 때, 모친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귀 군은 내년에 관리가 될 운명이고, 53세 8월 14일 축시에 자택에서 생애를 마칠 운명이라고 하며 유감스럽게도 자식은 없다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원료범은 이것을 써두고 진위를 확인하였으나 신명성이 있어 37세 때인 1569년에 우연히 남경 서하산(棲霞山)에 머무르던 고승 운곡선사(雲谷禪師)를 만났다. 3일이나 자지 않고 禪師와 對坐하여 3일간 앉은 채로 사념하고 일어나지 않는 원료범을 보고 어떤 일이냐고 물었을 때 원료범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하고 운명대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선사는 운명에 구속됨은 凡人에게만 해당되고 聖人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이에 원료범이 날마다 善行하고 주문을 외워가니 그 이후는 점괘가 맞지 않고 53세에 죽는다는 운명이 빗나가고 없다는 자식도 낳았다. 일개 성(城)의 장관 직위에서 끝난다는 것도 틀리면서 더 높은 직위인 명나라 軍의 주사(主事)까지 올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함경도까지 와서 일본의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를 물리치는 큰 공훈을 세웠다.

12) 袁黃, 김지수 옮김, 『운명을 뛰어 넘는 길(了凡四訓)』, 불광출판부, 1997, 10쪽.

修行하였을 당시 중국의 저명한 시인 白居易가 항주지사로 부임하였을 때 자신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불교에 대해 직접듣기 위해 항주 고승인 道林선사를 방문하여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냐고 물었을 때, 도림선사는 “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심오한 불법을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백거이는 도림선사의 평범한 말에 실망한 나머지 그런 말씀이라면 “三歲孩兒也知道了(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도림선사는 “三歲孩兒雖道得, 八十老翁行不得(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비록 말은 할 수 있으나 팔십 세 된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백거이는 크게 깨닫고 스스로 당대에 제일가는 문장가에 높은 지위라는 자각의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sup>14)</sup>

이와 같이 “諸惡莫作, 衆善奉行”은 불교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 전에 생활의 실천철학으로 친숙하게 정착된 것이다. 이 “諸惡莫作, 衆善奉行”과 관련시켜 불교사상을 논한 것으로 후루타 쇼킨(古田紹欽) 씨의 아래와 같은 해설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면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 仏教”의 一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많은 좋은 일을 행하고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덕적 행위를 하고 그 위에 종교적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sup>15)</sup>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다는 것만이 아니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13) 나무 위에서 세집같이 만들어서 생활하였다고 하여 조과(鳥窠)선사 혹은 주위에 까치가 많았다고 하여 작소(鶻巢)선사라고도 한다.

14)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 간다』, 불광출판사, 2006, 111쪽.

15) 古田紹欽, 『宗教とはなにかー仏教の立場から』(社會思想史, 1973), 47쪽.



것인데, 또 씨는 “諸惡莫作, 衆善奉行”을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그러면 諸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衆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점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전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자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타인이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뜻을 맑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자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여야 되는 것”은 후루타(古田)씨가 논하는 “諸惡莫作, 衆善奉行”과 관련된 불교 기본정신을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심보감』의 선악관 권선관의 중심적 사상이기도 하다. “諸惡”, 즉 여러 가지 악과 “衆善” 여러 가지 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아무리 조그마한 악이라도 행하여서는 안 되고 아무리 조그마한 선이라도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勿以惡小而爲之, 勿以善小以不爲, 『명심보감』, 『繼善篇』 10조) 모든 일에 악을 삼가고 선을 행하여야하는 사고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여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진실된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신의와 의리에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현대인들이 지녀야할 타인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恩義廣施, 人生何處不相逢, 『명심보감』, 『繼善篇』 28조).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은 현대 일본인들의 가정교육에서도 철저하게 주입되는 것으로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으면서도

16) 古田紹欽, 『宗教とはなにか—仏敎の立場から』(社會思想史, 1973), 49쪽.

가장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사고로 되어 있다.

“諸惡莫作，衆善奉行” 관련으로 일본의 이마나리 모토아키(今成元昭)씨에 의하면 奈良시대에 해당하는 “9세기 초엽에 奈良藥師寺의 승려 景戒에 의해서 편찬된 설화집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三卷”, 『日本靈異記』 各卷의 서문에 인용하여 “諸惡莫作，衆善奉行”이라는 불교와 관련시킨 용어를 사용하여 편찬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사람이 혹은 名聞利益을 쫓아 惡報를 받고 혹은 求道修行을 권하여 善報를 받는다고 하는 사례는 자주 보고 듣는 것으로 선악의 보답은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악의 형태와 인과의 보답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는 是非를 결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冥報記』, 『般若驗記』와 같은 중국 서적에 의한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여기서 자주들은 일본의 奇異한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景戒는 말한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奇異한 기록을 보는 者, 사악(邪)함을 물리치고 올바른 길(正)에 들어가 諸惡莫作 諸善奉行을 행하는 것을” 빌고 “바라는 것은 지옥을 떨쳐버리고 함께 서방정토의 극락(彌陀仏의 淨土)에 태어나 보금자리(巢)를 틀어(傾) 천상의 寶刹(彌勒菩薩의 淨土. 兜率天)에 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sup>17)</sup>

사람이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생각하면 惡報가 있고 도를 구하고 수행하면 善報가 있는 善惡報答의 사례는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이 선악 형태와 인과 보답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지만 『冥報記』, 『般若驗記』의 중국불교서적에 나타난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일본의 진귀한 이야기를 『日本靈異記』라고 말하고 있는데 今成씨는 이러한 “諸惡莫作 諸善奉行”<sup>18)</sup>의 “救濟의 의지가 설화에 의탁한 일본의 불교문학작품인 『日本靈異記』가 탄생한 것이다”고 하며 『명심보감』의 내용에도 나타나 있는 『日本靈異記』의 선악관이

17) 今成元昭, 『佛敎文學の世界』(NHKブックス307, 1978年), 15쪽.

18) 일본중세의 불교성인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道元의 저서인 『正法眼藏』의 제10에서도 “諸惡莫作”의 卷을 두고 있다. 増谷文雄, 『業と宿業』(講談社現代新書, 1971年).

“일본에서 처음으로 末法觀에 근거한 지옥과 극락의 사상이 보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奈良藥師寺의 승려 景戒의 불교설화집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日本靈異記』)에서는 現生에서의 착한 행위나 나쁜 행위(善惡行爲)의 결과는 來世를 기다리지 않고 現生에서 곧바로 그 과보를 얻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으로 現報主義에 근거하여 기록하고 여기에서는 因果應報 善因善果 惡因惡果 가운데서 몸소 선행을 쌓아 西方淨土에 태어난다고 하는 景戒의 求道心이 나타나 있다. 즉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진귀한 일(靈異)을 기록하고 그것을 연유로 하여 인과응보의 도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일을 가리키며, 이 因果應報 善因善果 惡因惡果 가운데서 몸소 선행을 쌓아 西方淨土에 태어난다고 하는 景戒의 求道心에는 불교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편집하였다.

『日本靈異記』 전편에 걸친 불교설화는 비열한 악행과 그 죄의 두려움을 알리고 佛法을 믿고 善行을 행하고 福德을 받는 실례를 논하는 것에 의해 잘못된 생각과 나쁜 행동을 고치고 佛法을 믿는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다.<sup>19)</sup>

이와 같이 “諸惡莫作 衆善奉行”은 일본불교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으로 일본의 중세 이래부터 불교 성인들이 널리 수용하고 또 민중들에게도 불교의 핵심사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태상감응편』의 인과응보와도 관련된 『명심보감』 서문의 “爲本及近勸世, 多勸修物外之善因, 少勸爲當行之善事, 其昔賢文等書亦迺於世流傳(근본을 행하여 가까이 이르게 하여 세상을 권계하는데, 크게는 세상 밖의 선인을 닦기를 권하고, 적게는 마땅히 행해야할 선행을 하도록 권하여, 옛날 어진 문장과 덕행의 글 또한 세상에 흘러 전하게 할 것이다) 중의 “多勸修物外之善因 少勸爲當行之善事”의 ‘物外의 善因, 즉 세상을 권하되 많이 세상 밖의 선으로 권하고, 當行의 善事, 즉 마땅히 행하여야할 ‘善’에서

19) 瀬戸内寂聽編著, 『佛敎と事典』, 三省堂, 1985, 150쪽.

‘善因’과 ‘善事’는 불가의 용어로 ‘善因’은 착한 일이고, ‘善事’는 자선 사업이다. 이는 흔히 불가에서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의 보답이 있다고 하는 인과응보와 뜻을 같이한다.<sup>20)</sup> 이러한 선악관은 인간의 善惡에 대한 상벌이 행위자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積善之家, 必有余慶. 積不善之家, 必有殃). 이러한 사고는 근세 일본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진과·수용된 사상으로 “선조의 행위가 因果라고 하는 형태로 각 가정의 혈통 가운데 나타난다. 선조의 뛰어난 공덕이 자손을 지켜주고, 선조의 악행은 자손을 멸하는 형태로 인과의 理法이 확실히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집안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까지도 연결된다.”<sup>21)</sup>

이와 같이 원본 『명심보감』 서문을 고찰한 결과 불교의 가르침과 因果應報에 의한 선악관이 포함된 출판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454년에 청주본 『명심보감』이 간행될 당시에 조선의 청주에서 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기록한 발문“寶鑑之爲書, 博考經傳, 采摭要語, 分爲二十篇. 是皆切於人倫, 日用而其要, 不過先明諸心而已(後略) 景泰午年甲戌十一月初吉, 奉直郎清州儒學, 教授官, 庾得和, 謹跋.”(『명심보감』이라는 서적은 經典을 널리 상고하고 일상에 요긴한 말을 모아 나누어 20편으로 하였다. 이는 모두가 인륜에 절실한 것이며 일용에 그것이 필요하며 우선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後略) 景泰 5년 甲戌 11월 초하룻날에 봉직랑 청주유학 교수관 유득화는 삼가 발문을 쓴다)의 “經傳을 널리 상고하고 일상에 요긴한 말을 모아 나누어 20편으로 하였다”에서도 유학자인 유득화는 ‘經傳’이라는 용어로 불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20) 송희준, 『『명심보감』의 諸問題』(『啓明漢文學會』 14, 1999). 성해준, 『『명심보감』의 저자 및 서문에 관하여』(『日語日文學』 제33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7년).

21) 大隅和雄, 『因果と輪廻に關する日本人の宗教意識』(『大系 佛教と日本人』 4, 因果と輪廻, 春秋社, 1986년).

이상 “서문”에서 편찬자 “范立本”이 釋尊의 가르침을 모아 『明心寶鑑』이라 하다가 “明心”과 “寶鑑”이라는 불교용어와 “善因”, “善果”의 불교의 응보관을 기본으로 모든 악을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불교사상을 한마디로 요약 표현한 “諸惡莫作 衆善奉行”의 원색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용어를 통해 『명심보감』이 불교의 핵심사상을 중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불경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어렵겠지만 당시 아직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정착되지 못한 시기에 “발문”의 “經傳”이란 용어로부터 이 서적이 유교와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명심보감』의 ‘서문’과 ‘발문’의 불교사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간행위의 선악결과에 따른 인과사상의 중요한 요소를 발췌하면서 불교사상의 기본인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불교의 핵심사상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그러므로 『명심보감』과 불교사상과의 관련연구가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하 본문의 『繼善篇』·『天命篇』·『順命篇』·『安分篇』·『存心篇』·『戒性篇』·『省心篇』·『言語篇』 등에 보이는 불교적인 요소를 들어 그 내용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 Ⅲ. 『명심보감』 본문의 불교적 내용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교와 관련이 깊은 용어(因果應報, 知足安分, 衆生濟度, 方便, 佛心, 看經, 參禪, 布施, 念佛, 戒律, 煩惱, 輪廻 등)를 중심으로

22) 특히 환과고독(鰥寡孤獨)한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도우는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였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이웃도 자신을 돌보아 준 따뜻한 사회에 감사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로 정리하였다. 아래에 예를 든 것 외에도 불교 전문가가 보면 『명심보감』의 많은 곳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명심보감』 본문으로부터 발췌한 내용은 善惡觀이나 財의 否定에 관한 것으로 불교관련을 다음과 같이 (1) 方便과 善行 因果應報, (2) 知足安分 운명 因緣, (3) 부처님의 慈悲와 功德, (4) 忍耐와 煩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方便과 善行 因果應報

- ① 耳聽善言, 不墮三惡. 『繼善篇』 13조  
귀로는 착한 일에 관한 말만 들어서 삼악(지옥, 아귀, 축생)에 빠지지 말 것이다.
- ② 與人方便者, 自己方便. 『繼善篇』 37조  
남에게 선행을 할 기회를 주는 사람은 자기도 선행할 기회가 있다.
- ③ 日日行方便, 時時發善心. 『繼善篇』 38조  
날마다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실행하면 시간 시간마다 착한 마음이 일어나서 선행이 계속된다.
- ④ 力到處行方便. 『繼善篇』 39조  
힘이라는 것 즉 선의 실행력이란 어느 곳에 가나 기회만 있으면 선행을 하게 된다.
- ⑤ 看經未爲善, 作福未爲願. 莫若當權時與人, 行方便. 『省心篇』 113조  
불경을 읽는 것은 아직 선행을 못했기 때문이고 복을 일으키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 만약 권세를 지키려고 시기와 사람을 편의에 따라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
- ⑥ 一毫之善, 與人方便, 一毫之惡, 勸人莫作, 衣食隨緣, 自然快樂. 算甚麼命, 問甚麼卜, 欺人是禍, 饒人是福. 天網恢恢, 報應甚速. 諦聽吾言. 神欽鬼伏. 『繼善篇』 43조  
한 톨 끝만 한 작은 선행이라도 남에게 할 기회를 주고 한 톨끝만한 악행이라도 남에게 권하여 하게 말라. 衣食이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 있어서 자연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무엇을 운명이라 하며 묻건대 무엇을 점괘라 하느냐? 남을 기만하는 것이면 이것이 곧 재앙이고 남을

풍요롭게 하면 이것이 곧 행복이다. 나쁜 사람을 다스리는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인과응보는 빠짐없이 몹시 빠르니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여 똑똑히 듣고 神을 공경하여 받들고 망령을 복종케 할 것이다.<sup>23)</sup>

권선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三惡, 方便, 因緣의 용어를 사용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선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항상 선한 이야기를 듣고, 선한 행동을 하여야 세 가지 악에 빠지지 않으니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을 실행하여 남을 풍요롭게 하며 인과응보의 원칙을 인식하여 선의 방편을 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은 暴 사나움, 虐 잔인, 頗 치우침의 三惡(地獄, 畜生, 餓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②, ③, ④, ⑤는 방편으로 여기에서는 부처가 중생을 진정히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한 교묘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方便<sup>24)</sup>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물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因果應報의 인과법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선악의 행위에도 그에 따른 응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행복이고 남을 기만하며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재앙이라며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과응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① 得福不知, 禍來便覺. 『省心篇』 340조

복을 얻는 것은 모르지만 화가 오는 것은 문득 깨닫게 된다.

② 種瓜得瓜, 種豆得豆, 天網恢恢, 疎而不漏. 『天命篇』 17조

23) 孤高更無上, 廣博無邊表, 乾坤在其內, 日月處其中(고고하고도 또한 가장 높아 위가 없으며, 넓고 넓어서 그 끝이 없다.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고 일월이 그 속에 있다).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95쪽.

24) 불교용어로 진실을 말하되 불교에서는 방편경, 방편바라밀, 방편법륜, 방편보살 등의 용어가 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과 같이 인과응보는 꼭 따르는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거칠기는 하지만 누락시키지 않는다.

- ③ 濟顛和尚, 警世詩, 看盡弥陀經, 念徹大悲呪, 種瓜還得瓜, 種豆還得豆, 經呪本慈悲, 冤結如何救, 照見本來心, 做者還他手. 『省心篇』 114조  
제전화상이 경세시에 아미타여래의 경문을 다 읽고 생각이 대비심다라니에 통하였다. 오이를 심으면 도로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도로 콩을 얻는다. 경문과 주문은 본디 불보살이 중생에게 낙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인데 원제에 걸려 伸冤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제할까? 본디 타고난 다음을 비쳐보니 원죄를 짓는 자는 만 사람한테 도로 받는다.
- ④ 自作還自受. 『省心篇』 115조  
자신이 지은 악은 자신이 도로 악과를 받는다.
- ⑤ 一派青山景色幽, 前人田土後人收, 後人收得莫歡喜, 更生收人在後頭. 『省心篇』 191조  
한줄기의 푸른 산의 경치는 그윽하고 좋구나. 저 땅은 옛사람들이 갈던 것을 지금의 뒷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뒷사람들이 너희는 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다시 또 갈 사람들이 바로 뒤에 있다.
- ⑥ 莫笑他家貧, 輪迴事公道. 莫笑他人老, 終須還到我. 『省心篇』 225조  
남의 집의 가난을 비웃지 말라. 부자와 가난은 돌고 돌아 쉬지 않는 것이 공평한 도리다. 남의 늙은 것을 비웃지 말라. 마침내는 모름지기 나에게도 늙음이 돌아온다.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자기 마음과 언행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보답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누구나 악의 인연을 끊고 선한 인연을 닦아 선한 과보를 바라야 한다.<sup>25)</sup>

칭찬하는 마음에서 복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화가 생기고 고민의 괴로움이 병으로 연결되듯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는 인과응보가 세상의

25) 袁黃, 김지수 옮김, 『운명을 뛰어 넘는 길(了凡四訓)』, 불광출판부, 1997, 13쪽.



순리이고 인과응보가 인간사의 부귀빈천도 불교의 윤회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인과응보를 논하고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선악의 인과응보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sup>26)</sup> 현실적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하면서도 그 자손은 흥성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가문이 융성한 경우가 있다. 불교의 삼세 인과응보에 따르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악이나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전생에 쌓은 복덕의 과보가 아직 바닥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 착한 사람의 시련은 그의 도덕수행을 크고 굳건히 성취시켜 주기 위한 하늘(신명)의 뜻이라고도 한다.<sup>27)</sup>

## 2. 知足安分 運命 因緣

### ① 知足者貧賤亦樂, 不知足者富貴亦憂. 『安分篇』 2조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도 또한 즐거울 것이고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신분이 귀하어도 또한 걱정한다.

### ② 公心若比私心, 何事不辨. 道念若同情念, 成仏多時. 『省心篇』 204조

공변된 마음이 만약 제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과 같다면 무슨 일이든 지비를 분변하지 못할 게 없으며 도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같다면 부처님이 된지 오래 될 것이다.

26) 袁黃, 김지수 옮김, 『운명을 뛰어 넘는 길(了凡四訓)』, 불평출판부, 1997, 63쪽.

27) 이 인과응보에 의한 六道轉生에 관해서 최근 전통적으로 윤회를 부정하는 기독교문화권인 구미제국에서 과학적인 방법과 실증을 토대로 윤회전생에 대한 2천 건에 이르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대학 심리학연구실의 이안스티븐슨 박사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조사한 내용 중에 이가기의 샹카라는 주인공은 1961년 7월 인도 동북부의 우타르푸라데시 卅 카나우지市에서 태어난 아이의 전생이야기의 실화를 기록한 '샹카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다. 샹카의 전생기억 중에 죽음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간직되었으므로 몸을 바꾸어 태어났지만 그 의식은 전생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일타르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효림, 1995, 134쪽.

- ③ 人心生一念, 天地悉皆知, 善惡若無報, 乾坤必有私. 『天命篇』 6조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염원하면 하늘이나 땅도 빠짐없이 모두 안다. 이를 안 하늘과 땅의 신이 선과 악에 대한 인과응보가 없다면 하늘과 땅은 꼭 사사로움이 橫溢할 것이다.
- ④ 一飲一擧, 事皆前定. 『順命篇』 3조  
한번 마시는 것이나 한번 뽑히는 사소한 것이라도 이미 정해진 것이다.
- ⑤ 万事分已定, 浮生空自忙. 『順命篇』 4조  
모든 일에 분수가 이미 정해졌는데 덧없는 인생들은 쓸데없이 바빠한다.
- ⑥ 万事不由人計較, 一生都命安排. 『順命篇』 5조  
만사가 천명에 맡겨진 것이니 사람의 논쟁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생도 모두 천명의 적당한 배치에 있다.
- ⑦ 會不如命, 知不如福. 『順命篇』 7조  
깨달음은 천명만 못하고 앎은 행복만 못하다.
- ⑧ 得一日過一日, 得一時過一時. 『順命篇』 13조  
하루를 얻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때를 얻으면 한 때가 지나간다.
- ⑨ 福至不可苟求, 福至不可苟免(安分篇, 10조)  
행복이 닥쳐오는 것은 구차스럽게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닥쳐오는 것은 구차스럽게 벗어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 ⑩ 緊行漫行, 前程只有許多路. 『順命篇』 14조  
급히 걸어가든 더디 걸어가든 前途에는 오직 대단히 많은 路程이 있을 뿐이다.
- ⑪ 藥医不死病, 仏度有緣人. 『省心篇』 142조  
약으로 병을 고치어 죽는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은 중생과 인연을 다한 사람을 제도할 것이다.
- ⑫ 有心無相, 相逐心生, 有相無心, 相隨心滅. 『存心篇』 19조<sup>28)</sup>

---

28)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58면.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常 卽見如來(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형상을 형상이 아닌 줄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밖으로 보이는 형상만을 보고 거기에 속아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부처님을 이해하는 일은 모두가 외형만을 보고 해서 안 되는 일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무쌍하다. 그래서 그 형상에 속지 않고 그런 형상을 아예 없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이나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형상이 없어지고 형상을 좇아 없애면 마음이 생긴다. 또 형상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지고 형상을 따르면 마음이 없어진다.

⑬ 無求勝布施, 謹守勝持齋. 『存心篇』 61조

구하지 않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금품을 베푸는 것보다 낮고 조심하여 몸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지내는 것보다 낮다.

知足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족함을 아는 것이다. 족함을 아는 자는 여유롭다 하는 사상은 노자에도 나오지만 불교의 『遺敎經』<sup>29)</sup>이라고 하는 짧은 경전에 나오는 것이다. 지족안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신분에 만족하는 것으로, 인간 욕망의 끝없는 추구가 결국 과욕의 번뇌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욕망만이 왕성하게 되어 생각대로 일이 실현되지 않아 무엇 이든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괴롭고 고민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욕망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욕망이 강하게 되어 필요 이상으로 넘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0)</sup>

인과를 알았다면 스스로 몸과 입을 잘 보호하고 방어하며 마음을 닦고 생각을 씻어 낼 수 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비밀이야기라도 하늘이 듣기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자기마음을 속이더라도 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번개와 같이 밝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明心寶鑑』, 『天命篇』 7조). 그러므로 비록 캄캄한 방안이나 깊숙한 구석에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천상 하느님(天帝)을 대면하듯이 공경하며 감히 사악하고 비열한 마음이 일어나 죄와 허물을 저지르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sup>31)</sup>

29)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석가가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을 하는 광경을 담고 있다. 산스크리트 원전이나 티베트본은 전하여 지지 않는다. 『불수반열반교계경(佛垂般涅槃敎誡經)』, 『불유교경』, 『불수열반약계경』, 『불임열반약계경』 등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많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漢譯하였다.

30) 古田紹欽, 『宗教とはなにかー仏敎の立場から』(社會思想史, 1973), 107쪽에서 老子에도 있는 내용으로 “遺敎經”이라고 하는 짧은 경전에 나오는 것.

또 선악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고 인간의 소유 사고도 天地神明은 알므로 인간은 미리 정해진 분수를 자각하며 어리석게 과욕논쟁을 삼가고 자신의 분수에 따라 행동할 것을 논하고 있다. 隨緣消旧業, 任運着衣裳, 要行卽行, 要坐卽坐, 無一念心, 希求仏果(임제록). 인연에 따라 묵은 업을 녹이며 형편에 따라 옷을 입는다. 걷게 되면 걷고 앉게 되면 앉는다. 한 생각도 부처가 되려는 마음이 없다(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非人所能也. 갈 때에는 가게하고 멎게 할 때는 멎게 하나,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이 능한 바가 아니다. 『明心寶鑑』, 『順命篇』 2條). 즉 인연과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천지 만물의 자연과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의 역할과 존재의 인연을 설명하며(諸法從緣生, 諸法從緣滅.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하늘, 땅, 天地人 모두가 인연에 의하고 구름, 바람, 비, 풀, 흙, 풀 등 산하대지와 森羅萬象 모두 사람들의 喜怒哀樂의 모든 감정도 인연에 의한 것이고 부귀명예도 인연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 도를 통하고 조작 없이 인연에 따라 살다보면 묵은 업도 사라지기 때문에 업을 녹이려고 하는 조작된 행위가 필요 없다. 걷게 되면 걷고 앉게 되면 앉고,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이것이 곧 이상적인 삶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곧 중생제도의 길과 통한다는 것이다. “事無逆順, 隨緣卽應, 不留胸中(〈書狀〉 大慧 宗杲禪師). 일을 대함에 있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든 맞는 것이든 다 인연을 따라서 맞이하고 가슴속에 넣어 두지는 말라.”<sup>32)</sup>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시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일으킨 것보다 그 일의 결과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꾸 키우고 확대시켜 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31) 袁黃, 김지수 옮김, 『운명을 뛰어 넘는 길(了凡四訓)』, 불광출판부, 1997, 13쪽.

32)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②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불광출판사, 2006, 174쪽.

는 공평하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닥쳐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다. 모두가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이므로 그냥 인연에 따라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더 이상 마음속에 묻어 두지 말고 지나친 동요나 집착과 과욕을 삼가 하고,<sup>33)</sup> 자연의 순리에 따라 천명을 의식하며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을 논하고 있다.

### 3. 부처님의 慈悲와 功德

① 將心比心, 便是仏心. 『存心篇』 7조

기르는 마음 삼가는 마음이 바로 곧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② 三点如星象, 横口似月斜. 披毛從此得, 作仏也由他. 『存心篇』 20조<sup>34)</sup>

많지 않은 물방울은 별과 같고 비긴 닭싹대는 기울어진 달과 같다. 풀을 헤치고 이를 따라 얻으니 부처가 되는 것은 남의 힘에 말미암는다.

③ 以己之心, 度人之心. 『存心篇』 8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④ 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 『省心篇』 132조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sup>35)</sup>

33)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평출판사, 2006, 44쪽. 주로 옛사람들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거울은 사물이 오면 비추고 떠나면 비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붙들어 두지 않고, 또 아무리 추한 것이라도 밀어내지 않는 그와 같이 마음을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슬픈 일은 슬퍼하되 슬픔 때문에 사람이 상하지 않고 기쁜 일은 기뻐하되 그 기쁨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4) 華嚴偈: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心字說: 三点如星象, 横鉤似月斜, 披毛從此得, 作佛亦由他. (『佛說十法界解說』 참조)

心者人之本源也一切万法盡在一心之內有八万四千等動則無窮無盡定則不變不移 釋云心生种种法生心滅种种法滅 道云心死則性月朗明心生則欲塵遮蔽 儒云制之一心則止謀于多事則亂 是以古聖教學人收攝其心歸于一處喚作万法歸一又名一字法門因人不信是心是佛是心作佛所以多种方便指示世人見自本性豈不見古云三点如星象横鉤似月斜披毛從此得作佛也由他是也上天入地皆在自心所爲非他處所得 經云在于閑處收攝其心.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35) 인간과 일체의 사물에는 차별과 평등이 존재하는데 불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측면을 잘 간파하여 인간 각자는 본래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논하고 있다(若論

- ⑤ 禮仏者，敬仏之德，念仏者，感仏之恩，看經者，明仏之理。坐禪者，踏仏之境。得悟者，正仏之道。『省心篇』 112조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는 것이고 불경을 외우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불경을 보는 것은 불교의 이치에 밝으려고 하는 것이고 앉아서 참선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를 이어받으려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은 불교의 도리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⑥ 仏經云，一切有爲法，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省心篇』 190조  
불경에 말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하여 생기는 법이라. 꿈과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그와 같이 관찰하라.<sup>36)</sup>

- ⑦ 道清和尚警世，善事雖好做，無心近不得。爾若做好事，別人分不得，經典積如山，無緣看不得，五逆不孝順，天地容不得，王法鎮乾坤，犯了休不得，良田千萬頃，死來用不得，靈前好供養，起來喫不得，錢財過壁堆，臨終將不得，命運不相助，却也強不得，兒孫雖滿堂，死來替不得。『省心篇』 244조

도청화상의 경세에 “착한 일은 비록 하기 좋아한다 할지라도 무심하면 가까이 할 수 없고, 네가 만일 좋은 일을 할지라도 딴 사람 분까지는 할 수 없고, 경전이 산더미 같이 쌓였을지라도 그것과 인연이 없는 이는 볼 수 없고, 오역하는 효순하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고 제왕의 법이 천지에 진양 할지라도 범죄가 저질러진 후면 그만두게 할 수 없고,

---

此事，無尊無卑，無老無少，無南無女，無利無鈍。 “선요, 고봉 원묘화상”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존비도 없고 노소도 없고 남녀도 없고 영리하고 둔함도 없다). 불성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일에는 존귀하고 비천함의 차별이 없이 평등함으로 누구나 똑같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150쪽.

- 36) 『금강경』에서 모든 현상에 대하여 허망하다고 하였는데, 위 불경의 비유와 인용은 “금강경” 사계구(四句偈) 중의 하나다. 경문에서 말하는 유위는 이 몸을 위시하여 일체조작이 있는 것과 작위가 있는 것들을 말한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모든 것들과 자연의 계절변화 등의 현상을 유위법으로 간주하는데 유위법은 금강경 사계구의 비유처럼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허망하므로 속지 말라는 뜻이다. 유위법에 속으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반야의 안목으로 존재의 실상을 보고 살라는 의미이다.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64쪽.

좋은 전답이 천만 이랑이라도 죽음이 온 후에는 쓸데없고, 영전에 바치는 음식물이 좋을지라도 일어나서는 먹을 수 없고, 돈과 재물이 벽을 넘도록 쌓였을지라도 임종에 다다라서는 마땅히 할 수 없고, 운명이 서로 돕지 않을지라도 물리쳐도 강하면 할 수 없고, 어린자손이 집에 가득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바꿀 수 없다 하였다.

- ⑧ 三寸氣在千般用，一日無常万事休. 『省心篇』 127조  
살아 있어야 모든 일에 작용할 수 있고 하루라도 몇몇한 일이 없으면 모든 일이 그만이다.
- ⑨ 万物有無常. 『省心篇』 128조  
만물에는 몇몇함이 없을 수도 있다.
- ⑩ 万般祥瑞，不如無. 『省心篇』 130조  
온갖 것의 길조는 없느니만 못하다.
- ⑪ 藏經云，人於倉卒，顛沛之濟，善用一言，上資祖考，下贖兒孫. 『言語篇』 13조  
대장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갑작스럽게 꺾이는 것을 돕는 한 마디 말을 적절하게 잘 쓸 것이다. 위로 돌아간 조상을 살피어서 아래로 자손들을 감싸 보호할 것이다.

기르는 마음 삼가는 마음을 논하면서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올바른 경지를 이어받아 불교의 도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즉 부처님의 자비와 큰 권능을 인식하며 모든 망상과 헛된 꿈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忍耐와 煩惱

- ① 心不負人，面無慙色. 『存心篇』 49조  
마음속으로 남에게 은혜를 지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을 것이다.
- ② 忍一時之氣，免百日之憂. 『戒性篇』 2조  
한때의 좋지 못한 기분을 참아 이기면 앞으로 백날 동안 근심할 것을 면하게 된다.

- ③ 是非只爲多開口，煩惱皆自強出頭. 「存心篇」 39조  
 시비라는 것은 단지 말을 많이 하는데서 되고 번뇌라는 것은 모두 스스로의 두각을 나타내려는 데서 억지로 하게 된다.
- ④ 得忍且忍，得戒且戒，不忍不戒，小事成大. 「戒性篇」 3조  
 참을 수 있는 대로 참아내고 경계할 수 있는 대로 경계하라. 만일 참아내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 ⑤ 一切諸煩惱，皆從不忍生. 臨機與對境，妙在先見明. 仏語在無諍，儒書貴無爭. 好條快活路，世上少人行. 「戒性篇」 4조  
 모두 여럿의 번뇌는 진부가 참는 마음이 없는데서 생긴다. 때를 당하여 함께 마주향하니 묘덕은 앞을 보는 밝은 지혜에 있다. 부처님의 말은 간하지 않는데 있고 유가의 책에는 다툼이 없는데 귀하다. 좋은 법은 시원스럽고 활발한 길인데도 세상 사람은 행하는 것이 적다.
- ⑥ 忍是心之寶，不忍身之殃. 舌柔常在口，齒所只爲剛. 思量這忍字，好箇快活方. 片時不能忍，煩惱日月長. 「戒性篇」 5조  
 참는 것은 마음의 보배고 참지 못하는 것은 몸의 재앙이다. 혀는 항상 입속에 있어 부드럽고 이는 잇몸에 있어 오직 억셀 뿐이다. 생각하고 헤아리건대 이 참을 인자로 하여 참는다면 적당하고 시원스러우며 활발한 방법이 된다. 잠시라도 참을 수 없다면 번뇌가 날마다 달마다 더해 갈 것이다.
- ⑦ 知事少是煩惱少. 識人多處是非多. 「省心篇」 87조  
 젊었을 때 일을 알았으면 번뇌가 적고 아는 사람이 곳곳에 많으면 다툼이 많다.
- ⑧ 踏實地，無煩惱. 「省心篇」 89조  
 실제로 밟아보면 번뇌할 것이 없다.
- ⑨ 讚嘆福生，作念禍生，煩惱病生. 「省心篇」 386조  
 감탄하여 칭찬하면 복이 생기고 생각을 지어서 하면 화가 생기며 욕정 때문에 심신이 시달림을 받아서 괴로우면 병이 생긴다.
- ⑩ 恩愛生煩惱追隨大丈夫. 亭前生瑞草，好事不如無. 「省心篇」 13조  
 은혜와 사랑은 欲情 때문에 심신이 시달림을 받아 괴로워서 대장부를 추모케 한다. 정자 앞에 상서로운 풀이 나거늘 일을 벌려놓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 ⑪ 小船不堪重載，深逕不宜獨行. 「省心篇」 88조



작은 배에는 짐을 무겁게 실을 수 없고 으스스한 길은 혼자 다니기에 좋지 못하다.

그 외 『言語篇』 14조, 『省心篇』 139조, 『省心篇』 140조

참는 것은 마음의 보배요 참지 못하는 것은 몸의 재앙이다. 모든 번뇌는 참을성이 없는 마음에서 생기고, 참지 못하면 번뇌가 날마다 더해 간다. 한 때의 좋지 못한 감정은 모든 근심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일시적인 나쁜 감정을 식이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 근심과 번뇌를 면하게 하여 작은 일을 큰일로 확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논하며 번뇌와 화의 원인이 되는 성급한 감정과 본능적인 욕정 때문에 심신이 시달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의 본문 내용을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는데 불교관련 인용으로 원본 『명심보감』의 서문에 이어 상편인 주로 『명심보감』의 본문의 앞부분에서 많이 인용한 것을 아래의 정리에서 알 수 있다.

- ① 『繼善篇』 47조 중, 13, 37, 38, 39, 43조, 다섯 곳
- ② 『天命篇』 19조 중, 6, 17조, 두 곳
- ③ 『順命篇』 16조 중, 3, 4, 5, 7, 10, 13, 14조, 일곱 곳
- ④ 『安分篇』 18조 중, 2, 10조, 두 곳
- ⑤ 『存心篇』 83조 중, 7, 8, 19, 20, 39, 49, 61조, 일곱 곳
- ⑥ 『戒性篇』 15조 중, 2, 3, 4, 5조, 네 곳
- ⑦ 『省心篇』 255조 중, 13, 87, 88, 89, 112, 113, 114, 115, 127, 128, 130, 132, 142, 190, 191, 204, 225, 238, 244, 340, 386조, 스물 한 곳
- ⑧ 『言語篇』 125조 중, 13조, 한 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심보감』은 서문 발문 외에도 본문의 여러 곳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권선서가 유불도의 3교합일 사상이 혼재된 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sup>37)</sup> 『명심보감』의 불교 사상관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고 관련 선행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왜 『명심보감』의 불교사상 관련연구가 경시되어 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IV. 『명심보감』의 불교적 내용 경시이유

『명심보감』의 불교적인 요소를 14세기 말, 즉 1393년에 초판본이 편찬된 원본 『명심보감』의 서문에 인용하고 편찬자는 석존의 가르침을 모아 『명심보감』이라 한다고 불교적 요소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명심보감』이 불교를 가장 중시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찍이 서문의 일부 내용이 선교사들에 의해 삭제된 스페인 번역본처럼 본문의 불교적 내용도 삭제되었다.<sup>38)</sup> 또 앞서서도 언급한 원본 『명심보감』의 서문자체를 삭제하고 본문내용의 불교경전으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여 편찬한 원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초략본” 『명심보감』이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는 가운데 임진왜란 때 원본조차도 문화재 약탈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즉 불교적 내용이 포함된 원본이 조선에서 자취를 감추다보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원본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져버렸다. 그러한 연유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초략본” 『명심보감』이 원본으로 오인되어 왔던 것이다. 이 “초략본” 『명심보감』 등의 판본이 오랫동안 유통되다보니 지금까지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

37) 김운수, 「『명심보감』에 인용된 景行錄에 대해서」(『道敎思想의 韓國의 展開』, 1989).

38) 성혜준, 『명심보감』 스페인어 번역의 정신문화적인 의의(『동북아 문화연구』 9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5).

런이 큰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454년(景泰5) 간행의 『청주본』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소실되고 난 약 50년 후인 1637년(崇德2)에 간행된 『抄略本』<sup>39)</sup> 『명심보감』에는 유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844년(泰仁, 孫基祖)에 간행한 초략본과 1868년(서울 무교동)에서 간행된 판본도 출판 의도나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 『인홍서원』 판본은 추씨 가문이 자신들의 선조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저자명에 고려시대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의 이름을 써 넣었다. 이후 『초략본』에서는 ‘抄’자를 빼고 완전 원본으로 탈바꿈하여 여기에 당시 명성이 높은 유학자들의 서문 발문을 붙여서 『명심보감』의 유교 교육서에다 추적 편찬설을 확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 베트남 국민방문 시, 베트남 공학회로부터 기증받은 『명심보감』을 귀국 후 대통령의 명으로 한글 번역판이 편찬되었는데 그때 편자를 추적으로 명시하면서 『명심보감』의 추적 편찬설이 정착하였다. 동시에 원본의 유교 불교 도교사상에서 불교 도교사상을 배제하고 유교사상만을 발췌하여 편제한 『초략본』이 유교서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불교적 내용은 잊혀 지게된 것이다.

즉 조선의 『초략본』 『명심보감』에서는 불교적 요소가 포함된 서문 전체를 생략한 것은 물론 본문의 불교사상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조선의 『청주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명간본』·『청간본』, 일본의 『화각본』에는 있는 “불심(佛心), 번뇌(煩惱), 계율(戒律), 참선(參禪), 인연(因緣), 무상(無常), 중생제도(衆生濟度)”와 같은 원색적인 불교적 특성이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렸다.<sup>40)</sup> 이로 인하여 한국 『명심보감』

39) 원본 『명심보감』 20편 중 제17편 『存信篇』이 빠진 19편으로 편성된 판본.

40) 『명심보감』에는 도교의 대표적 인물인 노자와 장자 글뿐만 아니라 “徐神翁, 東岳聖帝

에서 편찬자는 물론 서문, 본문의 불교관련 내용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중국·일본이 『명심보감』과 더불어 다른 권선서인 『태상감응편』·『음즐록』·『공과격』을 함께 수용한 것에 반해, 조선에서는 『명심보감』이 주자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유학서적으로 정착하였고 또 이는 중국·일본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수용한 데 반해 조선에서는 주자학만이 존중되면서 수용된 것과 관계가 있다.<sup>41)</sup>

서문의 내용 중 인간의 善惡行爲에 대한 「天」, 혹은 「神」에 의한 응보의 필연을 논하면서도 唯一하고 절대적인 창조신을 믿는 기독교 선교사 코보<sup>42)</sup>의 『명심보감』 번역본(사본)에는 “太上感應篇曰”과 “節孝徐先生曰”의 예를 비롯하여 서문에서의 도교적인 내용과 불교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명심보감』과 불교사상과의 관련이 잊혀 지게된 것이라 생각된다.

## V. 맺음말

서문의 “선배가 이미 알고 있던 민간의 여러 책 중에 중요한 말을 모으

---

垂訓, 玄帝垂訓, 紫虛元君誠諭心文” 등의 글도 많이 실려 있다. 인홍서원관 『명심보감』은 원본에서 불교사상을 배제한 판본으로 유불도 3교합일 사상에서 종래의 설에서는 도교까지의 언급하면서도 불교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가 없다.

- 41) 이러한 한국의 주자학 존중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퇴계가 陸象山과 王陽明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주자학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陸王學의 올바른 이해와 그 진과에 큰 방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북한에서는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퇴계를 ‘반동분자로 규정한다든가, 퇴계의 鄉約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42) 일본의 경우, 급격한 그리스도교의 침투에 대해 히데요시(秀吉)와 이에야스(家康)는 같이 그리스도교를 배척하기 위해 일본을 신국 혹은 불교국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교도를 여겨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괴멸시키는 『敵』으로 간주하였다.

고, 자애 깊은 釋尊의 가르침의 착한 말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 『명심보감』이라고 하였다”와 모든 악을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불교사상을 한마디로 요약 표현한 “諸惡莫作 衆善奉行”의 원색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본문의 불교관련(方便과 善行 因果應報, 知足安分 운명 因緣, 부처님의 慈悲와 公德, 忍耐와 煩惱) 인용발췌와 해설을 통해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불경과 관련된 方便과 善行 因果應報, 知足安分 운명 因緣, 부처님의 慈悲와 功德, 忍耐와 煩惱 등에서 『명심보감』 본문의 원색적인 불교적 용어로 佛心, 作佛, 念佛, 禮佛, 佛度, 佛經, 成佛, 看經, 經典, 無常, 因緣, 參禪, 三惡, 方便, 浮生, 煩惱, 輪廻, 布施, 戒律, 藏經, 濟顛和尚, 道清和尚, 衆生濟度 등 부처님의 자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심보감』의 불교관련 勸善사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일반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다. 방편과 선행의 보시 즉 물질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어 의지가 되어주는 일들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또 웃는 모습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과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며,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베풀어 그 사람과 같은 처지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측은한 마음으로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다운 보시라는 것이다(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真布施). 궁극적으로 진정한 善行이란 빈궁 기한·환과고독(貧窮飢寒·鰥寡孤獨)한 자로 寡夫, 寡婦, 孤兒, 病者, 肢体 부자유자 등의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를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생을 이어가는 천지의 동포로 간주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우는 것이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다.<sup>43)</sup>

43) 성해준, 『가이바라에키겐의 勸善學』(『日本學報』 44호, 한국일본학회, 2000).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210쪽.

불교의 이러한 정신이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인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일 반에는 불교신도가 늘어나고 서양의 학자들에게도 불교의 자비 사상이 주목 받아 불교연구가 왕성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일찍이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에 전파된 『명심보감』의 권선사상과 많은 부분에서 상통하는 불교 정신이 동서융합에 도움이 되고 오늘날 세계 정치의 긴장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44)</sup>

본문의 많은 내용 중에서 그래도 불교와 관련이 깊은 내용을 발췌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였으나 불교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學者諸賢들의 叱責은 금후 『명심보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44) 성해준, 『명심보감』 스페인어 번역의 정신문화적인 의의(『동북아 문화연구』 9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5).

## 【참고 문헌】

- 청주본, 『명심보감』, 츠크바(筑波)대학 소장의 1454년 간행 조선판본.
- 초략본, 교토대학 타니무라문고(京都大學谷村文庫) 소장 조선판본.
- 화각본, 『명심보감』, 도호쿠대학 카노문고(東北大學鹿野文庫) 소장 1861년 간행판본.
- 명간본, 『明心寶鑑正文』 나이카쿠문고(內閣文庫) 소장.
- 청간본, 『官版無訛 明心寶鑑』 勉耘堂梓行 히젠 시마바라 마츠다이라 문고(肥前島原松平文庫藏) 소장.
- 김윤수, 『『명심보감』에 인용된 景行錄에 대해서』, 『道敎思想의 韓國의 展開』, 1989.
-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효림, 1995.
- 袁黃, 김지수 옮김, 『운명을 뛰어 넘는 길(了凡四訓)』, 불광출판부, 1997.
- 송희준, 『『명심보감』의 諸問題』, 『啓明漢文學會』 14, 1999.
- 성해준, 『일본 『명심보감』 전파와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研究』 9,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3.
- 임동석 역주, 『현문』, 김영사, 2004.
- 임동석, 『『明心寶鑑』과 『昔時賢文』의 同一句節 比較考』, 『중국어문학논집』 31, 2005.
-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① 『진흙 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사, 2006.
- 무비스님이 가르쳐 뽑은 명구 100선 ②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불광출판사, 2006.
- 성해준, 『한국 『명심보감』의 전파와 수용 양상에 관하여』, 『退溪學과 韓國文化』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 성해준, 『『명심보감』 본문 각 편의 내용고찰』, 『南冥學研究』 23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増谷文雄, 『業と宿業』, 講談社現代新書, 1971.
- 古田紹欽, 『宗教とはなにか—仏敎の立場から』, 社會思想史, 1973.
- 今成元昭, 『仏敎文學の世界』, NHKブックス307, 1978.
- 瀬戸内寂聴編著, 『仏敎と事典』, 三省堂, 1985.
- 大隅和雄, 『因果と輪廻に關する日本人の宗教意識』, 『大系仏敎と日本人』 4, 春秋社, 1986.

Abstract

Connected with Myongsimbogam and Buddhism(明心寶鑑)

Sung, Hae-Jun

In 1393 Chinese Fanrifan(范立本) who editor of Myongsimbogam(明心寶鑑) said Myongsimbogam is the collection of important word from books all over the world and report of Buddha's instruction. The Myongsimbogam included the word like Buddha's love(仏心), evil passions(煩惱), meditation(參禪), etc which related with Buddhism. In 1454 this sort of Myongsimbogam started by Chungju wood board(淸州本) and the books after published Ming wood board(明刊本), Qing wood board(淸刊本) and Japanese wood board(和刻本) are also include buddhism thoughts but, the Korean Myongsimbogam don't have any word related with buddhism. because, the middle of Joseon preiod abbreviation wood board(抄略本) Myongsimbogam published after Original Myongsimbogam disappeared. Buddhism worlds are eliminated by purpose. that's why present academic don't write any dissertation except about buddhism thought in Myongsimbogam. so, this essay will try to observe relationship between Myongsimbogam and Buddhism by using Original Myongsimbogam which published in 1454.

Key Word

Myongsimbogam, Confucianism, Buddhism thought, a preface, of a letter, Chungju wood board

▪ 논문투고일 : 2009.6.30. 심사시작일 : 2009.7.18. 심사완료일 : 2009.8.4.